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성 요셉 성월)

제31권 17호(가해) 2011.3.20

[묵상]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일상을 살듯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랜 신앙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의심, 불만, 좌절, 지쳐감.
그래서 때론 특별한 위로를 꿈꾸게 된다.

그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보다.
처음으로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위한 특별한 위로를 마련하신다.

확신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소리.
베드로는 그 위로가 영원하길 원하나
하느님은 그 위로를 금방 거두신다.

행여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할까봐
위로를 마련해주시는 예수님께
이젠 당신의 위로 없이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기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신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 ㄱ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명합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성세근 요셉, 이인순, 이재숙 김정재 안젤라, 홍관 요셉
	(생)이종원 베드로 & 아녜스 가정, 이종민 요셉, 정해홍 요셉, 문밥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민소예 모니카, 권순봉 요안나, 조지 가보라, 홍숙녀 마리아, 박송희, 이현호 요한, 이재숙 고준희 제임스, 김동영 베드로, 엄은섭 도로테오
	(생)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박홍룡 요셉 & 박진숙 엘리사벳 가정,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김태웅 & 김유미 사비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2,1-4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흠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1,8-10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환호송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7,1-9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1	187	157
봉헌	259	269	257
성체	주님께서는	150	106
파견	149	103	150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

인간의 비할 데 없는 존엄성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나누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1요한 1,3).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모든 남녀의 마음속으로 가져가야 하며, 사회의 모든 부분속으로 파고들어 가게 해야 한다.

81).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선포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심오한 친교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일깨워 주신다. 그것은 그 인격, 그 생명과 육체성 간의 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긍정이다. 그것은 인간 생명을 관계의 생명, 하느님의 선물, 그분 사랑의 열매이며 표징인 생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 각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과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서 "자신을 진지하게 내어주라."는 요청이다. 또 여기에는 이 복음의 모든 결과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선물인 인간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낙태와 안락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랑에 찬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의 의미는 사랑을 주고받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의 빛 속에서 인간의 성과 출산은 그 참되고 충만한 의미에 다다르게 된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과학과 기술이 항상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전체 사회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처한 모든 상황속에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82). 참으로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부터 항구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들을 주장해야 하며, 그 이후로 교리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대화와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이 진리들을 주장해야 한다. 교사, 교리교사, 신학자들은 모든 인간 생명 존중의 토대가 되는 인간학적인 이유들을 강조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의 복음이 지닌 참신함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 개인적 체험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인간이 무엇이며, 그 존재와 실존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온전히 밝혀주고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계속)

진정한 변신

우리는 사순절의 가운데 와 있습니다. 사순절 첫날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었습니다. 재를 얹은 이유는 언젠가 재가 되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경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일상을 멈추고 광야에 나가 인생의 진실을 찾으려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셨답니다. 우리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까? 하느님 자녀의 얼굴입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 맞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데 지금 얼굴로 뽐낼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미지 시대입니다. 약간의 성형을 하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을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면 일도 잘되고, 스타도 되고, 대통령도 넘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변신이 아니고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얼굴이나 외모에 대해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못생긴 얼굴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못생긴 것이 내탓이 아니니 부끄러워하거나 자신 없어 할 일이 아니며, 잘 생긴 얼굴을 만드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것 또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외모보다는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눈빛과 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아진 것입니까? 성형된 자기와 돈 그리고 명예를 빼면 도대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기는 어디갔습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 함께 잔

뜯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굶아떨어지자 짓궂은 스님은 그 사람의 머리를 홀랑 깎아버리고 가버렸답니다. 한참 뒤 술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시원해진 자기 머리를 만지며 하는 말, “어?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예수님은 오늘 어떤 높은 산에서 진정한 변신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빛을 내는 엄청난 변신 말입니다. 그 변신은 외모의 일시적 변신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달리하는 변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로써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존재적 변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좀 더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내면의 본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늘 걸 꾸며진 모습으로 익명 속에 안주하는 삶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나약하고 안일한 나를 죽여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길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항상, 힘을 길러주는 힘든 길을 택해야 합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찬근 투카 신부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송민영 보나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울리아	권순길 세실리아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제물봉헌자			P.V.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충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 사순 제2주간 금요일(3월25일) : 토런스 남구역, 본당 M.E.가족
- 사순 제3주간 금요일(4월1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8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5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를 잘 준비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사순 판공성사 : 4월6일(수)

- 미사 및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로마서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
- * 사순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올려드립니다.

◆ 사순 특강 II ‘그리스도인의 삶과 희망’

- 일시 : 오늘 주일(20일) 낮미사 후 성전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가톨릭 입법네트워크(CLN) 본당교우 334명 등록

지난주 '생명과 존엄성' 주일(13일)에 백삼위 본당 교우 334명이 캘리포니아주 가톨릭 입법 네트워크(CLN)에 등록했습니다.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주요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온 라인 사이트 등록 www.cacatholic.org

◆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27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복장 : 정장 및 한복(점심 제공합니다.)
- 문의 : 꾸리아단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제1회 본당 신부님배 가족사랑 3인 농구대회

- 일시 : 4월24일 부활대축일 오후 2시, 성당 농구장
- 게임방식 : 토너먼트, Half Court *게임시간 : 12분
- 팀구성 : 선착순 24팀 접수
- 준비물 : 팀별 농구공 *참가비 : 팀 \$20
- 선수구성 : 가족단위 3명이 한팀(본당교우 only)
- 상금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신청 : 오늘 주일부터 4월17일(주일)까지, 사무실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체육분과장 ☎(310)594-9472

◆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3월18일 현재 집계 총 92,477단

- 토런스 동구역 : 15,943단 ● 토런스 서구역 : 18,144단
- 토런스 남구역 : 8,401단 ● 토런스 북구역 : 6,590단
- 하버카슨 구역 14,809단 ● P.V.구역 : 19,581단
- 기타 : 9,009단 ▶총 9만2천4백77단
-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사무실)를 제대앞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제 67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2011.5.6(금)-5.8(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50(부부당)
- 문의 : 김성현 유스티노 & 회연 루시아 ☎(213)458-3356

◆ 세레, 견진 사진이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 아침성가대(아도라페) 단원 모집

-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문의 : 김비비안나 ☎(213)407-0487, 정테레사☎(310)650-6933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0일(주일) : 토런스 북 1반(콩나물비빔밥 \$3)
- 3월27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권태만	김대우	김병학	김영정	김옥보	김주량
	김주량	김풍길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문충한
	문충한	민순선	박영룡	박인식	박주현	소성덕	손춘화
	손춘화	송기철	송재훈	신경훈	안민수	오세원	유희연
	오일순	유근우	유선식	유희연	이경태	이귀관	정상봉
	이명선	이민상	이영희	이일길	임 순	정병훈	정상봉
	정상봉	정해홍	조준제	지경수	채양석	최의수	하정화
	하정화	한연만	홍광선	홍테레사	송마이클		
	합계 : \$4,560						
성전헌금	강숙경	권태만	김대우	김병학	김옥보	김주량	합계 : \$3,290
	김풍길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노혜숙	문충한	
	민순선	박영룡	박인식	박주현	소성덕	손춘화	
	신경훈	안민수	오세원	유근우	유선식	유희연	
	이경태	이명선	이민상	이영희	임 순	정상봉	
	정해홍	조준제	지경수	채양석	최의수	하정화	
	한연만	홍광선	송마이클				
	합계 : \$3,290						
미사헌금 : \$2,831	감사헌금 : 박이레네						주보광고 후원 : \$1,0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오늘 한국학교 SAT II 한국어 시험

- 일시 : 오늘 주일(20일) 낮12시 2층교실
- 신청비 : \$1 *대상 : 한국어 모의고사를 원하는 모든 학생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310)422-0066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준비물 : 슬리핑백, Pillow, Towels, 세면도구, 여벌옷, 신발, 재킷, 선데이스쿨 Red Shirts, Sun Block, 주일헌금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 (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Lomita)
- 대상 : 이번 성사는 주일학교 10학년 이상으로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않은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 신청자는 위 3일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본당설립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18일(주일)~24일(토)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가칭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창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및 봉헌갱신미사

- 일시 : 3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637 킹슬리 드라이브)
- 미사집전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신현화 헬레나 533-0454 3/15(화)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신중철 아브라함 530-7702 3/12(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3/20(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3/14(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당 433-9075 3/2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오티리아 972-9193 3/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김유미 사비나 738-5305 3/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이용식 베드로 516-0818 3/11(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3/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4-8908 3/12(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허정자 리타 377-3820 3/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3/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3월 사목회	오후 1시
--------	-------

2011년 사순 시기 담화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 전례력에 있어 정점을 이루는 시기는 부활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이 부활 대축일을 특별히 잘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정화와 보속의 시기를 지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구원 사업을 이룩하시기 위해 공생활 전 40일간을 단식과 기도로써 준비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회개와 보속, 단식과 기도로 신앙생



활을 쇄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본받는 사순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와 공동체적인 차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순 시기에 회개와 함께 단식과 자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식과 자선은 사순 시기에 하는 회개와 극기, 보속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적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단식은 일반적인 단식에 기도가 더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마르 1,13) 엄격히 단식하셨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극기(克己)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인들은 극기의 한 방법으로 단식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단식으로 육체와 정신을 맑게 비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식을 통해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의 욕심과 혼란함

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단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식은 사순 시기를 지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중요한 참회 행위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은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연대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단지 교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이웃 사랑의 실천인 자선으로 연결될 때 단식의 행위는 영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선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현세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극기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져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항상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결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또한 자선은 공동체의 일치를 누리는 기쁨의 열매를 선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행하는 자선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재물이 아니라 사랑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선은 우리 안의 이기심을 부수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서 눈뜨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자선이 널리 퍼져 나갈 때 그만큼 우리 사회는 더 밝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둡고 슬픈 시기라기보다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기쁘고 즐거운 시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넘칠 때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역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이 사순 시기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믿는 이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께 전구를 간청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